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월 20일 (제673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에배 워킹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럼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요즘 주변에서 나에게 인사의 기준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성서적인 인사 기준은 무엇인지, 또 내 사건은 어떤지 궁금해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인사 기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뛰어난 용인술(用人術)이다. 국가 경영이나 기업의 성패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써야 할까? 먼저는 도덕성이다. 청렴결백한 사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보직에 앉아야 한다. 도덕성은 도리를 아는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 맡겨진 직분에 대한 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도덕성의 부재로 인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한주먹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기억하라. 둘째는 능력이다.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다. 당연히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를, 기업을 이끌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요셉의 경우, 도덕성도 좋았지만 그에게는 흥년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셋째는 신뢰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쓰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신뢰도는 곧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신뢰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음을 나는 묵회 28년 동안 많이 체험했다. 다윗의 용사 37명은 다윗을 신뢰했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가 마실 물을 길으러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다. 넷째, 믿는 자여야 한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국가나 기업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고로 기도하는 자가 보직에 있어야 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여! 육식을 가릴 줄 아는 혜안을 가져라.

후회 없는 일전을 기대하며

2013년 새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는 각오를 다졌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선택과 절제의 영적 전쟁들을 치러야한다. 진정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그 선택과 절제의 순간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행동에 옮기는 습관만이 내 삶을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다.

우리 역사의 자랑인 성웅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의 패전도 경험하지 않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그가 연전연

이라 할 것이다. 출전에 미온적인 이순신을 질타하며 참소하는 무리들에게 "나는 이기는 전쟁을 한다."라고 당당하게 소신을 지킨 그는 그 말처럼 연전연승의 대업으로 호남과 남해를 굳건히 지켜냈고, 패색이 짙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흐름을 바꾸어버렸다.

목사님과 함께 해외선교사역에 나선 지 올해로 이제 13년째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고, 숭한 영광의 순간들을 맛보았다. 물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현지 준비팀의 기도부족과 전략

동일한 자세로 임하셨 것이다. 지난 해 멕시코 카르테나스(Cardenas) 집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다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목사님이 영적 전투에 임할 때, 한결같이 유지하는 자세요, 정신이다. 집회를 앞두고 하루 7, 8시간 기도해 전무하고, 집회 현장에 나가 그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2009년 8월 멕시코 파사팔코스 집회 광경

승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매우 상식적이다. 그가 남다른 신기술을 가졌다고보다는 이기는 전쟁을 수행한 결과다. 그는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낙담하기보다 오히려 12척이나 남아있다면 낙심해있는 선조를 위로했다. 그리고 적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전술 마련에 혼신을 다했다.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도 승전을 위한 그의 마지막 전술이었다.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심, 승전을 향한 긍정적 사고, 치밀한 전략전술 등이 그의 위업을 대변하는 밑거름이라고 할 것이다. 원정군인 왜군의 약점, 곧 전장(戰場)의 상황에 낯선 적보다 홀그라운드의 이점을 갖고 있는 조선 수군의 장점을 극대화한 이순신 장군의 전략전술이 그 유명한 명랑해전, 한산대첩을 이끈 비결

부재에서 온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집회 역사상 목사님이 진두지휘하신 전쟁은 모두 대승의 위업을 이루었다. 목사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곧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무한충성심, 철저한 긍정적 사고, 전쟁에 임하는 정신자세와 전략전술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다, 기도라는 영적 전투에서 무서우리만큼 철저한 자기절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2013년의 첫 해외집회에 나선다. 멕시코(Mexico) 파사팔코스(Coatzacoalcas)와 에스카르세가(Escarcega) 두 도시에서 계속되는 이번 집회 역시 목사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세,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종의 기도에 응답하지시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무수히 보듯,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으로 확실히 응답해주셨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이기는 방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다. 문제는 실천이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 2013년, 여러분 앞에 무수한 영적 전투가 펼쳐질 것이다. 가히 후회 없는 일전을 치루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들을 가슴 판에 잘 새기고,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초석 목사 멕시코 집회

▶일시: 2013년 1월 14일(월) ~ 26일(토) ▶장소: 파사팔코스 & 에스카르세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33:14~18)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후회란 잘못을 한 후에 뒤늦게 그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깨치고 뉘우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나 후회에는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또한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 후회할 일은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부터 후회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라시하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인 지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나서 후회하고,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행이 우리가 잘못될까봐, 죄에 빠질까봐 꿈으로, 이상 중에,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애야, 길을 잘못 가고 있단다.", "애야,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멍이에 빠지지 않

로장로회를 구성하고, 임원진을 세우려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꾸었습니다. 시무장으로 측에서도 난리가 나고, 원로 장로로 임명된 자들이 분이 가득하여 자기 손을 잘라 유혈이 낭자한 꿈이었습니다. 놀라 깨어 생각해보니 이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저는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구나' 해서 일단 보류해놨습니다. 제가 만일 이 꿈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히 하갈의 꿈에서 아들을 보더니 집안도 시끄러워졌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



않았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 را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 취하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내용이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내이니 손대지 말라. 그러면 네가 살려나와 네가 돌려 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것이다." 꿈을 깬 아비멜렉은 변민하다가 사 را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많은 예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사케 하셨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별 희한한 꿈도 다 있네' 하고 이를 무시했다면 어떤 꼴이 났을까요? 그는 물론 그의 가족과 나라에 쓸조상이 났을 것입니다. 벧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과 해와 달이 자기에서 절하는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신 요셉, 그는 그 꿈을 이해할 수는 없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험난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서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태하자 그의 약혼

자였던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는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마1). 꿈을 통해 하나님의 대의(大義)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해산할 때까지 동침치 않았습니다.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요셉의 꿈을 통해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헤롯에게 가지 않은 것도 꿈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2:12).

저는 꿈의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 계시하신 것들을 다 노트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단 건물을 인수하려 할 때 두 배가 난파된 꿈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있고, 집을 사려고 할 때 제가 죽는 꿈을 꾴서 거액의 계약금은 날렸지만 이사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북종한설이 몰아치는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고 포근한 잠을 같이 잔 목사님을 따라 목회를 시작한 꿈도 적혀 있습니다. 목회 28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출몰도 할 줄 모르는 저를 시시때때로 꿈으로 교훈하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였고, 혼이 구멍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은 사사로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허황되고 거짓된 꿈 해석자들(신13:1-5, 렘23:25-32, 렘29:8-11)에 대한 모세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줍니다. 땅의 중앙에 고가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아래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자를 치고 열매를 해쳐서 들짐승과 새들이 떠나게 하고 간신히 그루터기만 남겨 두라고 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이 해몽했으니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계시를

계시를 무시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곱 해 동안이나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무자(無子)한 것을 보시고 그의 이상 중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창15). 또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난 기쁨 속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창46:3). 이사가야 사는 이상 중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며,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것입니다. 셋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처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송을 들었지만, 그 계시를 무시한 사울은 처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누군가와 동업하려고 합니까?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거든 그것이 당장에는 합당하지 않게 보여도 그 계시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듣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고,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꿈으로, 이상 중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쓰러라도 꼭 삼키십시오. 분명히 약이 될 것입니다. 원래 명약고구(名藥苦口) 아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렘2:17).

보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보라

게 하시며 그 생령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요33:15-18). 그런데 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가 말한 것에 콧방귀나 끼고 있다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의 말에 마이동풍(馬耳東風)격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꿈으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함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끝입니다. 잠언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야말로 후회막급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70이상 되신 분들로 원



새해마다 사람들은 행복을 기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은 다르겠지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팔 수도 없고 복권으로도 가질 수 없지만, 이웃들의 좋은 말과 웃음, 친구의 전화, 그리고 세의 노랫소리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행복하다 느낍니다. 아이들은 낙엽 잎이 떨어지거나 아침이슬에도 비처럼 속삭이고 천둥처럼 폭소를 터트리며, 그들의 꿈이 이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아봅시다!

루어진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 귀여운 손에 키스할 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니콜라이 오스트롭스키는 그의 소설 '죄가 어떻게 달궈지나'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단 한번 주어지기에 후회 없이, 낭비 없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조금도 찰림 없이 살아야 한다고... 인간은 죽기 전에, 그의 삶에서 잘못된 길을 갔던 것과 우선시 했던 것에 대해 뒤우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들은 삶의 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공통적인 것은 왜 그들 삶에서 도전하지 않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임무를 성취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항상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이 주는 자유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언젠가'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나는 산을 보고, 언젠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언젠가'란 말이 입에 붙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끝나기 직전에 그들이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느끼는 대로 표현하기 두려워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에도 제대로 된 사랑표현을 자존심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매 순간마다 느끼는 바를 서로에게 표현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십시오. 새해에는 휴대폰, 메신저만은 교유하여 후회를 만들지 말고, 인간 본연의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2013년에는 후회하는 방을 만들지 말고, 이웃과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한 한 해를 만들시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를 맡고 있는 이현숙 선교사입니다. 먼저 한국의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급속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목사님께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이 먼 곳까지 오셔서 부흥집회도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세차레나 보내주신 153구제물품, 그리고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신 덕분입니다. 153구제물품을 밤새워 분류하고 봉투에 담아 시골 지역을 돌며 가난한 인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일해 봅시다

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받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큰 보람과 행복에 젖게 합니다. 또한 평생 들도 보도 못한 고급 웃을 받는 그들은 너무 놀라며 행복해합니다. 우리 간파나 장로님이 인사했듯이 정말 우리는 단순히 의복을 받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가슴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53구제물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 선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영상을 통해 많이 보셔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중남미 선교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10년 넘게 중남미 선교에 동행하며 통역을 담당하면서 저는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해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사용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더욱 충성하는 것이라 믿고, 저도 새해에는 정말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일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우리는 371명의 교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1,000명에게 침례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5,000명 성도가 출석하는 파라과이 최대교회로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미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워낙 먼 거리를 오셔야 하고 시차에, 음식에, 날씨에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서 건강을 주셨기에 10년 넘게 남미 선교에 주력하실 수 있었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 목사님은 유명인사가 되실 만큼 큰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아니 그 이상 이 사역을 지속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정말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목사님처럼 능력으로 선교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 종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주시는 것처럼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성도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이현숙 선교사

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JC Academy series

지난 1월 9일, 총회장 목사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부터 바꾸라'는 말씀으로 2013년도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의 서두를 여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뼈아픈 것은 다름 아닌 '후회'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부터 바꾸어야 한다. 또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없다. 베드로 사도가 '진 자는 이진 자의 종'이라고 한 것처럼(벧후2:19), 저도 팬클럽다는 반복적인 생각이 입술로 표출되어 무의식에 저장되면,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파헤치게 만든다. 우리는 겉도 습관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인데, 스스로가 비하발언하면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귀에 행하라' (민14:28)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입술로 뿌린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다. 저도 팬클럽다는 자가 어떻게 정상에 올라가겠는가? 반드시 이기고야 말리라, 앞의 것은 허상이요 실상은 내가 생각하고 입술로 뿌린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이 마침내 정상에 올라설 것이다. 또한 입술의 말로 씨앗을 뿌렸다면 물과 거름을 주고 가꾸는데 힘써야 한다. 씨가 뿌려 나지 않는다고 지구 파헤친다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는 실컷 기도하고 부정의 말로 열매를 맺는 행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18:8)고 말씀하신 것이다. 히브리어 기자가 우리 믿음의 선친인 아브라함 역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히6:15). 또한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사

회적 제도나 남이 아닌 결국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가지 더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면서 가지고 거들거들 간청하여 마침내 딸의 병을 고침 받은 것과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 보리떡을 강청하여 결국 얻어낸 이의 이야기를 보라. 이는 설령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고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한 뱃뺨 부르짖음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얻어낸 한나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2013년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젊은이들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이와 같은 '조작적인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여자들은 어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창29:15~

30). 이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목적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씨앗을 뿌려라. 내가 목회 초창기에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을 때 많은 이들은 비웃었지만, 지금 나는 세계 방방곡곡을 뛰어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은가?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 심으면 씨가 자라듯, 여러분이 뿌리는 말에도 분명 생명이 있음은 일라." 우리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사43:18).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과 사막에 강을 내는 기적과 같은 축복이 2013년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한다.

이국진 기자



“지구의 종말이 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후회 없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신년 메시지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짐해 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때때로 어렵고 힘든 경우를 당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자신의 생활에 불만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그 시절의 어려움이 내 삶의 축전제가 되었고, 자신을 발견하며 발전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봅니다. ‘젊어서 고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곤경에 처할 때, 어려움과 곤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욥5:7). 흐르는 물을 막아놓으면 물은 막힌 곳을 넘어서 흘러갑니다. 2013년에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막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막히는 곳, 즉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야말로 막히는 곳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주

는 핵심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벗기면 축복이 웃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벗기는 과정을 ‘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 삶에 역동성을 갖게 합니다.

2013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내게 능

력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쫓겨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으며 많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해주시고 우리를 향해 오라고 손짓하시는 주님을 향해 기도와 감사와 충성된 모습으로 달려갑시다. 자, 출발합니다!

익산예수증심교회 양종성 목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얼마 전 심방을 가는 길에 라디오를 청취했는데, 진행자가 소개하는 로션 바르는 방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피부 전문가에 따르면 로션도 바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위쪽에 로션을 털어서 살짝 문지른 후, 얼굴 아래에서 위로 로션을 바르면 피부의 탄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찮은 로션도 제대로 바르는 방법을 알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라는 환경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나 세계관의 틀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일반적인 풍습에 따라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양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은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야한다는 생각에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 손이 바뀌었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나도 안다. 아들이!”라고 말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명으로 자손들을 축복했을 때,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하신 것들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아시고 날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약속과 보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올 한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전2:2)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는 비결입니다. 올 한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후회 없이 사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익산예수증심교회 박인택 목사

한파 대비 관절 관리하기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되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근육이나 인대로 가는 영양분과 통증을 줄이는 물질 전달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곧 염증과 통증이 잘 생기는 환경입니다. 더구나 추위 때문에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 활동량이 점점 줄어 관절염 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으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뼈를 둘러싼 조직들이 모두 위축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외상에 취약해지고, 작은 외상이 반복돼 과열로 발전하는 일이 더 잘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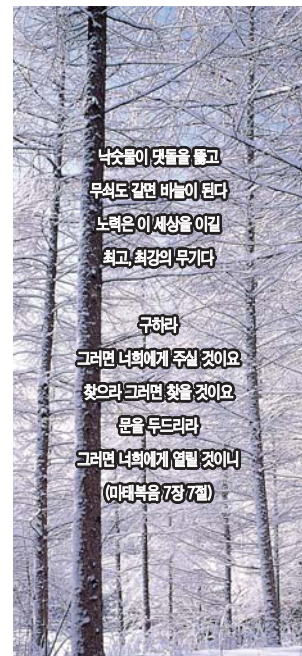
관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내의를 입는 등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합니다. 무릎 담요 등으로 관절 부위를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추위에 너무 오래 노

출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외출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만약 추위에 오늘을 땀었다면 반신욕 등으로 관절의 긴장을 풀어줄 것을 권합니다.

추위를 대비한 내 몸 관절 관리법으로는 첫째, 추위도 운동은 꼭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걷기운동이 좋습니다. 걷기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럽어지게 해야 합니다. 운동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이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근육운동도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가벼운 것을 여러 번 들어서 근육을 강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겨울 비만을 조심합니다. 우리는 직접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 엉덩이,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날수록 관절들이 받는 압력도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신체

활동이 적어서 살이 찌기 쉽습니다. 밤이 길어서 야식도 많이 찾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체중관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무릎이 아프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관절을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누르는 힘을 받쳐주지 못하면 관절, 연골 등에 부담이 갑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허벅지 근육을 길러야 하고 허리가 약하면 등근육과 복근을, 발목이 약하면 장딴지 앞, 뒤 근육을 키워 관절을 보호합니다. 넷째, 무릎 꿇기, 양반다리로 앉기는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방석을 엉덩이 밑에 하나 더 넣어 다리 쪽보다 엉덩이 쪽이 높으면 보다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조류, 멸치, 건과류를 자주 먹으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edical Dr. 조희경 집사



낙숫물이 빗물을 만들고
무식도 길면 바늘이 된다
노력은 이 세상을 이긴
최고 최강의 무기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